

## 책머리에 사회민주주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1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과정은 맑스의 이론과 실천노선이 최초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시기였다. 바로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 해당하는 이 세계사적 전환기는 맑스의 가르침이 국제사회주의운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초의 시기이지만, 역설적으로 맑스 이론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중대한 수정을 요구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정통'의 권위를 확보한 레닌주의와 소련 공산당에 의해 '부르주아의 앞잡이', '사회파시스트 세력'으로 비판을 받은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이 시기에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정통'을 빛나게 하는 희생양으로 존재해온 '사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레닌주의 역시 이 시기 국제노동운동의 위기와 맑스주의의 이론적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즉, 레닌이 직업적 혁명가에 의한 전위정당의 건설과 계급의식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베른슈타인이 노동계급 자신의 힘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고 비노동계급의 정당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성장과 계급투쟁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한 맑스 사교의 중대한 수정이었다. 양자는 모두 계급주의와 정치가 자연스럽게 일치될 것이라고 사고한 맑스의 가설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실천적으로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단지 레닌의 모델이, 노동계급의 성장이 매우 지체되어 있으나,

선진노동자와 혁명적 지식인의 전투성이 서구에 비해 현저하였던 러시아라는 상황에서 창안된 것이었다면, 베른슈타인의 고민은 노동계급의 동일성의 와해와 노동귀족의 등장, 보통선거권의 확대에 의해 노동자의 의식이 개량화되고 있는 서구의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 상이했을 따름이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이 결국 당시 서구 노동운동과 맑스주의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서구 사회주의의 이후의 흐름에서 혁명적 요소를 거세하는 전통을 마련하였음에 반하여, 레닌의 전위당은 '계급'과 '계급투쟁'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 러시아 혁명은 국가의 계급성을 전제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권력을 혁명적으로 전복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속에는 "얼마나 맑스의 진정한 사고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진지하게 묻기 이전에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정통'의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통과 사이비라는 무익하고 해묵은 논쟁에 끼어들기 전에, 결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세계사의 객관적인 전개과정에 모든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붕괴, 노동계급의 통일성과 전투성이 맑스의 예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맑스주의의 공동 기초자인 엥겔스가 생존할 당시에 현저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이 시기 이후 모든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서구 공산당이나 맑스주의 이론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맑스의 정치경제학에서의 가치론과 전형의 문제, 정치학과 국가의 문제, 사회학에서의 중간계급의 문제, 도덕과 윤리적 요소의 문제, 불균등발전과 제3세계의 혁명의 문제 등 허다한 이론적 쟁점이 이 시기에 최초로 문제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현실에 대한 설명력보다는 미래에 도래할 사회주의의 필연성의 인정 여부로 '정통'의 권위가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도전들은 무시되어왔다 어찌면 1917년 이후 70년 동안의 현존 사회주의의 존속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모든 이론적, 실천적, '수정'

에 대해 계속 큰소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통’의 물리적인 담보체인 소련과 동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정통’ 이론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만으로 자신을 버티기 힘들어졌다.

## 2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는 곧 레닌과 스탈린의 이론과 실천적 모델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맑스 이론이 레닌에 의해 재해석(혹은 발전)되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형태의 맑스주의의 재해석(혹은 발전, 수정)의 과정에 대한 관심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즉, 1989년 이후 세계 각 지역의 운동가나 이론가들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국가-시민사회에 대한 맑스의 고전적인 이분법, 의회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자본주의 정치제도에의 참여의 문제, 노동계급의 분화와 신중간계급, 노동계급 이외의 사회계급과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구하는 문제, 개량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과거에는 무시하였던 주제들에 대해 새롭게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실은,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없다”라는 카우츠키의 주장, “사회주의는 오직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되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정식에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사상들은 이미 19세기말부터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이론과 실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회주의적인 ‘권력의 길’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이상을 끊임없이 굴절시키고 양보함으로써만 자본주의라는 울타리 내에서 입지를 마련해올 수 있었다는 점

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선거정치의 틀 내에서 한번도 단독으로 51%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설사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당의 실천이 보여주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선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해방은 노동자 자신만의 과제일 수 없다”는 딜레마, 즉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순수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문제, 사회주의적 목표를 견지해야 하는 과제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결국은 자신의 이념을 굴절시키고 현실정치 속에서 비노동자계급과 연합, 연대해야 하는 과제를 이들은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했다 즉,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의 확보라는 견지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성과가 적지 않겠지만,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견지에서만 보면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결코 성공한 모델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오늘날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서구 공산당의 현저한 세력감퇴는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변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역시—정도의 차이는 있으나—중요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회현상, 사회운동이나 사회사상이 그러하듯이 사회민주주의 역시 역사적 진공 속에서 전개되어온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혹은 자유주의와의 끊임없는 대결 속에서 이념, 정책, 실천의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형식적 평등성의 허용은 구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이 당하는 억압과 차별, 그리고 이러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에 대해 투항적 자세를 보인 수정주의자들의 모습이 레닌의 격분을 일으켰다면, 노동계급의 협소한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비타협적인 투쟁이 실제 운동을 고립시키고 좌절시키고 개량화되고 있는 노동대중의 요구와는 무관한 추상적 구호만 남발하는 레닌주의자들에 대한 실망이 사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만들었다 전자가 후자와의 대결 속에서 더욱 교조화되었다면, 후자는 전자와의 대결 속에서 더욱 우경화, 개량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선협적인 이론과 사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모든 논의를 출발시켜야 할 것이다

레닌주의의 붕괴가 사회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의 한계가 레닌주의의 진리성을 증명해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레닌에 대한 반사적 대립으로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 역시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3

흔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외적인 계기에 의해 주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러한 세계사적 격변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사회민주주의가 서구적 토양 속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듯이, 한국의 경우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민중적 통일운동의 전개, 중간층의 건인, 의회에 대한 전술,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환경, 여성운동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에서 부딪치고 있는 이러한 과제는 과거의 한국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온 것들도 있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맑스, 레닌의 이론들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고 있고, 경험적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 운동가나 이론가라면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하나의 외적인 계기에 의해 유행을 타듯이 새로운 사상의 조류를 받아 들인 것처럼 비웃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 얼마나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론적인 전제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과거 한국의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변혁론 논쟁의 구도를 그대로 견지한 채 거기에는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보태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레닌의 힘을 빌어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김일성의 힘을 빌어 레닌을 비판 하듯이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 그람시의 힘을 빌어 레닌을 비판하는 구도나 그 역의 구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맑스-레닌과 다르므로 사회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야기나 그 역의 이야기들은 이제 무의하다는 것이다 사상, 이론은 언제나 사회현실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운동적 실천 속에서 구현되며, 정책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이론'을 논리 그 자체로 다루는 노력은 언제나 '교리 논쟁'의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의 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 일반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론으로 다루어지기 전에 우선 '역사'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역사로서 다루어지는 노력이 축적됨과 동시에 그것의 철학적 방법론적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인간 사회의 궁극적 이상을 탐구하는 노력이 무시되고 철저히 정책적 대안의 차원에서만 사회민주주의의 논의가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베른슈타인은 “중요한 것은 최종목표가 아니라 운동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한 태도 속에는 커다란 함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즉, 현실을 개혁하려는 열망,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정에 의해서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많은 운동가, 대중들을 정책적 사안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차갑고 타산적인 시민으로 치환시켰기 때문이다.

단지 기존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이론 진영의 구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의를 다룸에 있어서 실제 서구 사민당에서 이루어진 일들, 당시의 당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에 대한 탐구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과 정책들이 몇 마디의 '이론'적 언명으로 폐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할 따름이다.

둘째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레닌주의에 대한 완전한 무

관심과 정산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이나 저것 이나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우리의 학계풍토 속에서 새로운 이론이 풍미하면 그것을 비판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즉,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맑스 혹은 레닌의 저작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 해주며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들 주장의 진정한 의미와 한계가 관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변혁론 논쟁은 여전히 그것을 구현할 정치적 주체를 가진 '주체 없는 논쟁', 혹은 '실천을 앞질러간 논쟁'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론과 실천을 매개시킬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된 상태에서 논쟁을 해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사회민주주의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종목표를 둘러싼 내부의 논쟁에 의해 내부 자체가 적대적으로 분열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전술적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방법론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안은 어느 정도는 가설이고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논쟁은 '주체를 확립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4

이번의 사회민주주의 특집은 이러한 의도를 살려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웨덴 등의 사민당의 실천이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소개되고 있으나, 사회민주당의 선거전략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높은 추상 수준의 전략논쟁이나 사상논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들에게서 이러한 사례연구는 매우 거북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세세한 문제에 파고들어가보면 당장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답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생각해온 그간의 연구들이 오히려 훨씬 잘못된 것이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서구의 풍부한 이론적 자산, 그들의 매우 추상적이고 정교한 이론들도 모두 이러한 노력들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소개된 영국, 스웨덴, 프랑스의 사례연구는 필자들이 이들 나라의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며, 이들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자체도 막 입문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서 몇 권에 기초하여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기이한 연구풍토에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독자들에게 내놓는다.

1991. 8. 23.

『경제와 사회』 편집주간 김동춘 씀